



■ K-리그 6강 플레이오프 누가 가나?

성남·수원·울산·경남 '안정권' 남은 티켓 2장 향방은 '안갯속'

2007 K-리그가 막판으로 치닫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부터 새로 도입된 6강 플레이오프 진출에 어느 팀이 성공할까.

K-리그는 지난 주말(22~23일)까지 팀당 22경기를 치러 이제 14개 팀이 각각 4경기씩만을 남겨놓고 있다.

중간 순위를 살펴보면 똑같이 15승5무3패 승점 47을 기록하고 있는 성남 일화 와 수원 삼성이 골득실차로 선두 다툼을 하고 있다.

이어 3위에는 10승9무3패(승점 39)의 울산 현대, 4위는 11승4무7패(승점 37)의 경남 FC가 각각 올라왔다.

이들 상위 4팀은 6강 플레이오프 진출을 위한 안정권에 접어들었지만 나머지 2장의 향방이 아직 오리무중이다.

5위 전북 현대(8승6무8패)와 6위 FC 서울(6승12무4패), 7위 포항 스틸러스(8승6무8패)가 골득실 차이로 순위가 갈렸을 뿐 아니라 승점 30을 올리고 있다.

여기에 8위 인천 유나이티드(7승8무7패 승점 29)와 9위 전남 드래곤즈(7승7무

9위 전남 '실날 희망'

광주 '물 건너간 꿈'

9패 승점 28)가 뒤를 바짝 뒤쫓고 있고 10위 제주 유나이티드(7승5무10패 승점 26), 11위 대전 시티즌(6승7무9패 승점 25)도 아직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다. 최하위 광주 상무는 플레이오프 진출에서 멀어진 지 이미 오래다.

5위부터 11위까지 무려 7개 팀이 남은 2장의 6강 플레이오프 티켓을 놓고 혼전을 벌이는 양상이다. 5. 6위인 전북과 서울은 일단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지만 변수가 남아있어 마음을 놓을 수 없다.

전북은 지난해 우승을 거머쥔 아시아 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일정이 계속 겹치며 주전들의 체력이 문제다.

전북은 29일 대구와 원정경기, 다음달 7일 전남과 홈경기까지 K-리그 2경기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서울은 주전들의 올림픽대표팀 차출이 문제.

올림픽대표팀은 다음달 17일 최종예선 4차전 시리아 원정을 떠나는데 최근 부상에서 돌아온 박주영을 비롯해 이청용, 기성용, 김진규 등이 모두 차출 대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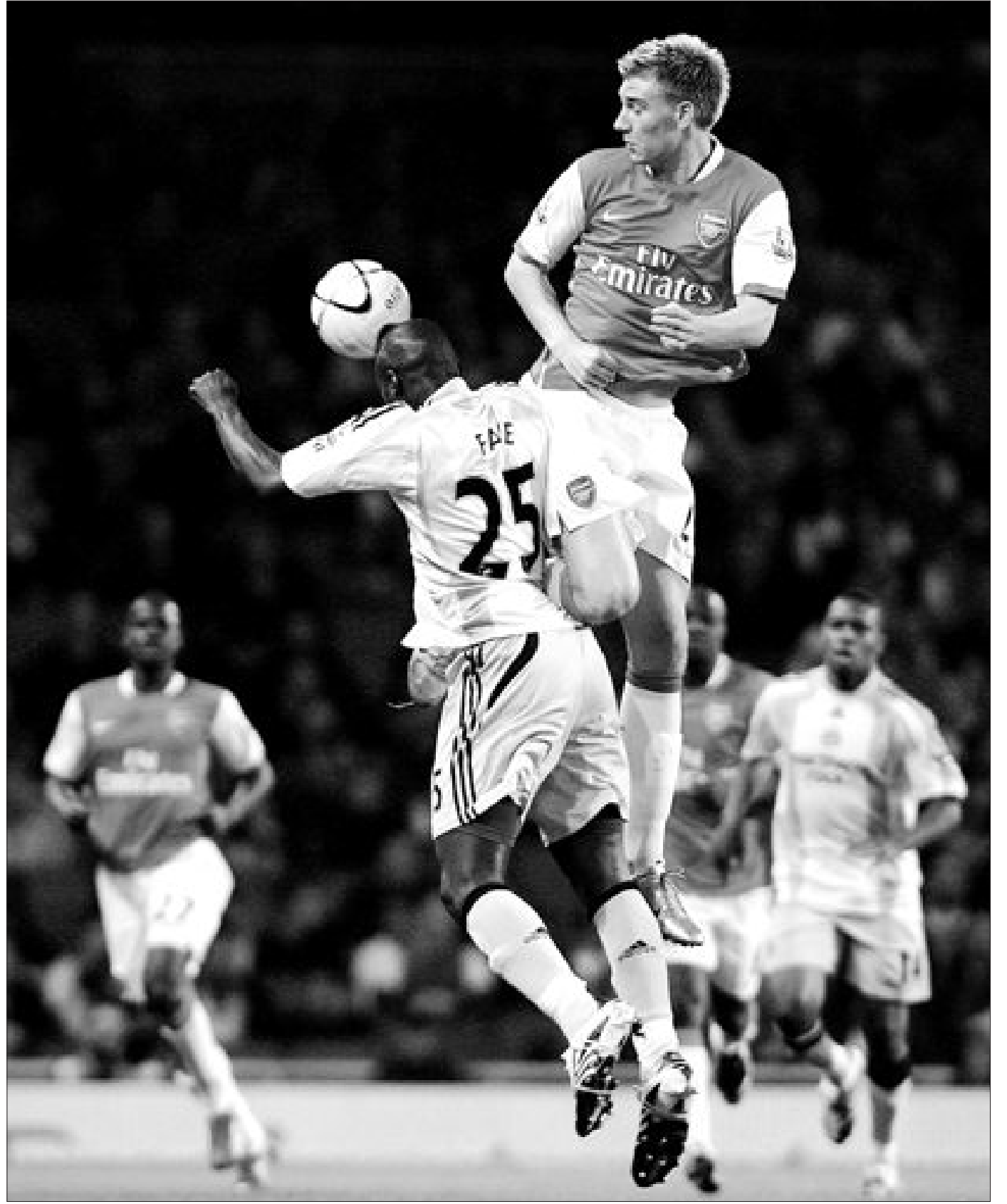
이들이 모두 다음달 9일 차출되면 올해 K-리그 마지막 2경기(10일, 14일)에서 뛸 수 없다.

전북과 서울만 불리한 건 아니다. 포항과 제주, 전남, 인천도 내달 3일 FA컵 4강전을 앞두고 있어 선수들의 체력이 걱정이다.

대전만 K-리그 이외 경기를 치러야 하는 부담이 없지만 승점에서 가장 뒤쳐져 있어 쉽지 않다. 5~6위 다툼을 하는 7개 팀이 모두 크게 유리하지도 불리하지도 않은 상황이다.

각 팀 사령탑과 선수들은 힘들고 고되겠지만 축구팬들은 막관 치열한 순위 다툼을 지켜보는 재미가 한층 더해질 전망이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뛰긴 더 높이 뛰었는데...

26일 영국 런던에서 열린 잉글랜드 프로축구 칼링컵 아스날과 뉴캐슬의 경기에서 양팀 선수들이 공중볼을 다루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이천수 왼쪽 측면 맡을듯”

페예노르트 기술이사 밝혀



이유”라고 말했다.

앞서 이천수는 23일 밤 필립스 구장에서 펼쳐진 PSV 에인트호벤과 페예노르트의 라이벌전을 현장에서 지켜보면서 팀 전술과 네덜란드 리그 분위기를 익혔다.

이천수는 26일 열리는 FC 위트레흐트와 더저컵 2라운드부터 출전이 가능하지만 데뷔전은 30일 오전 3시(한국시간) 데 퀴프 홈구장에서 열리는 정규시즌 6라운드 SC 헤렌벤전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오랜 기다림 끝에 네덜란드 프로축구(에레디비지)에 진출한 이천수(26·페예노르트)가 현지시간 24일 오후 로테르담 데 퀴프 구장에서 공식 입단식(사진)을 갖고 새 팀 동료와 첫 훈련을 시작했다.

페예노르트의 피터 보스츠 기술이사는 이천수를 현지 취재진과 팀원들에게 소개하면서 “로메오 카스텔렌, 로이스턴 드렌테가 떠난 자리에 선수가 필요하다. 이천수는 왼쪽 측면에서 스트라이커들을 받치는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스츠 이사는 이천수가 가능한 한 빨리 최고의 컨디션을 되찾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면서 아울러 의사소통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등번호 16번이 새겨진 페예노르트 유니폼을 처음 입은 이천수는 네덜란드어를 빨리 익히고 싶다고 한 뒤 “네덜란드 출신인 림 베어 벡, 딕 아드보카트 감독 아래서 훈련했기에 전술적으로 네덜란드 스타일을 충분히 경험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페예노르트에 적응하는데 별 문제는 없을 걸로 본다. 난 오랜 시간 유럽에서 다시 돌아올 수 있을지를 고민했다”며 “페예노르트는 훌륭한 팀이고 전 세계에 알려져있다. 내가 이 팀을 선택한

배구 남녀대표팀 을 월드컵대회 출전권 획득



배구 남녀 국가대표팀이 내란히 11월 열리는 2007년 월드컵 국제대회에 나갈 수 있게 됐다.

대한배구협회는 26일 남자 대표팀이 11월 18일부터 12월 2일까지 일본에서 열리는 월드컵에 출전할 자격을 얻었다고 밝혔다.

이달 초 아시아선수권대회 때 3위를 차지해 2008년 베이징올림픽 세계 예선전 출전 티켓을 따냈던 남자 대표팀은 중국과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 2위로 세계랭킹이 높아와 월드컵에 초청됐다.

월드컵에는 한국 외에 개최국 일본과 아시아 1위 호주, 대륙별 1, 2위인 스페인, 러시아(이상 유럽, 미국, 푸에르토리코(이상 북중미), 브라질, 아르헨티나(이상 남미), 이집트, 튀니지(이상 아프리카), 초청팀 불가리아 등 총 12개국이 참가한다.

여자 대표팀도 앞서 아시아선수권대회 2위의 성적으로 올림픽 세계 예선과 월드컵 출전권을 얻었고 이는 국제배구연맹(FIVB)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식 확인됐다.

〈27일〉

- ▲2007 한술코리아오픈 테니스대회(12: 50·MBC)
- ▲2007 프로야구〈한화〉 삼성(18: 20·SBS스포츠·MBC ESPN·00·KBS N SPORTS)
- ▲2007 메이저리그〈뉴욕Y〉 탬파베이(08: 00·Xports)
- ▲2007 메이저리그〈샌디에이고〉 샌프란시스코(11: 05·Xports)
- ▲07/08 잉글랜드 칼링컵〈토터넘〉: 미들스브로(04: 00·KBS N SPORTS)

연료비가 획기적으로 절감되는 난방

“칼레오” 원격외선, 집안 난방이 혁명적입니다.

◆에너지 절약 30% 이상

◆공간 절약 50% 이상

◆친환경 난방

◆시공이 간편하고 빠르다

◆향후 에너지 절약에 기여할 수 있는 친환경 난방 기술

대리점 및 취급점 모집

(주)태양상사 TEL. (062)282-0101

무동산 경제 전문회사

부동산 전문회사 (주)무동산

☎ 062-282-3400

무동산은 부동산 거래, 임대, 관리, 투자, 상담 등 모든 부동산 관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주요 서비스:

- 부동산 매매/임대 상담
- 부동산 투자 상담
- 부동산 관리 서비스
- 부동산 법적 자문 서비스
- 부동산 시장 분석 서비스
- 부동산 계약서 작성 서비스

무동산은 고객의 만족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주)홈런무동산 리서치

부동산 리서치 전문회사 (주)홈런무동산

☎ 062-282-3400

홈런무동산 리서치는 부동산 시장 분석, 경쟁사 분석, 마케팅 전략 수립 등 다양한 리서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주요 서비스:

- 부동산 시장 분석
- 경쟁사 분석
- 마케팅 전략 수립
- 부동산 리서치 보고서 작성

홈런무동산 리서치는 고객의 성공을 위한 최선의 파트너입니다.

대표이사: 박진표